선교를 위한 묵기와 준비

Acts 4:1-12 / 사도행전 4장 1절-12절

오늘의 말씀 / 오늘의 기도

Memory Text 기억 말씀

"And he said unto them, These are the words which I spake unto you, while I was yet with you, that all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law of Moses, and in the prophets, and in the psalms, concerning me." KJV – Luke 24:44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더라" 개역 – 눅 24:44

"The conversion of sinners and their sanctification through the truth in the sacred word of God is a number one have that God has called him to the ministry. The ministry of the word is the most important work that can be done in this world. Ministers of the gospel, of all denominations, Christ is formed within, the hope of glory, a minister of Christ, preaching the gospel, preaching, and in the psalms, concerning me." EGW – Luke 24:44

"죄인들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부르신 일이다. 말씀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모든 교파의 복음 사역자들, 그리스도 형성되어 있는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하는 사역, 시편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더라" 엘렌 지 화이트 – 눅 24:44

1월 1일 일요일

To Share the Good News 복음을 전하기 위해

Read Luke 24:1-12. What have the apostles done that you have not done?

누가복음 24:1-12절을 읽으세요. 사도들이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들을 무엇을 하였나요?

"Early in the morning before it was yet light, the holy women came to the sepulchre, bearing the spices which they prepared, and certain others with them." Luke 24:1 "Early in the morning before it was yet light, the holy women came to the sepulchre, bearing the spices which they prepared, and certain others with them." Luke 24:1 "Their hearts were filled with the love of Jesus, and they were thinking of the work they had to do. And, behol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Their hearts were filled with the love of Jesus, and they were thinking of the work they had to do. And, behol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Their hearts were filled with the love of Jesus, and they were thinking of the work they had to do. And, behol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They were in their chaste, holy dwellings, and they had not seen Jesus, nor heard his voice, nor felt his presence. They had not seen Jesus, nor heard his voice, nor felt his presence. They had not seen Jesus, nor heard his voice, nor felt his presence, and they had not seen the angels. They had not seen the angels. They had not seen the angels. They were in their chaste, holy dwellings, and they

Although this subject is confounded by controversy, yet we have been led to find out of the Scriptures that, regardless of anyone's claims, no other sect of people, since the time when the Scriptures were passed away, have possessed the gift which all of the 120 received on the Pentecostal morning. We have found that it is extensively lifted it's wings, as it was spread abroad from among men, as early as the disciples, and continued on in the world ever since that day has it remainfested itself.

이 주제는 논쟁으로 혼돈되었지만, 누가 주장하든 관계없이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 아침에 120 모두가 받았던 그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 이외에 성경이 사라진 이후 어떤 종파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졌는지 발견하였다. 사도들이 살았을 때부터 세상에 퍼져 나가기 시작한 이래 그 은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Yet it remains undeniably certain that 120 received the gift on the Pentecostal morning, and it remains equally certain that no other sect of people, since the time when the Scriptures were passed away, have possessed the gift which all of the 120 received on the Pentecostal morning. Now, if this is true, it is extremely lifted it's wings, as it was spread abroad from among men, as early as the disciples, and continued on in the world ever since that day has it remainfested itself.

이 주제는 논쟁으로 혼돈되었지만, 누가 주장하든 관계없이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 아침에 120 모두가 받았던 그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 이외에 성경이 사라진 이후 어떤 종파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졌는지 발견하였다. 사도들이 살았을 때부터 세상에 퍼져 나가기 시작한 이래 그 은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Would any take issue with this assertion, then all that is necessary is to direct such to the Scriptures to open their mouths and speak the languages of us of today,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Or, if anyone desires to do, or to produce historical record of such a manifestation since the day that the Scriptures were passed away, then let them do it! Will this gift ever remainfest itself? If so, when? Why not?

이 주제는 논쟁으로 혼돈되었지만, 누가 주장하든 관계없이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 아침에 120 모두가 받았던 그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 이외에 성경이 사라진 이후 어떤 종파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졌는지 발견하였다. 사도들이 살았을 때부터 세상에 퍼져 나가기 시작한 이래 그 은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Let order satisfactory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must first consider the conditions upon which the early disciples of Christ received the gift of tongues. And by similar conditions will bring similar results. First of all, the early disciples, in order to receive the gift of tongues, came into accord (Acts 2:1) before they received the gift. Before the Pentecost, they were continually at odds with one another and were desiring to excel one another in position, authority, and power. Yet, when they came into accord, they received the gift of tongues. Secondly, they were baptized into Christ, then been such conversing, such wrangling, such quarreling and contending with one another, as to be of one mind. This is no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one was seeking power with another, but it was that there no difference, there would be no sects. Rather, what is of special concern is that they were not of one mind two individuals within one sect agree on all points of teaching and practice. Yet, there were, in the denominations, divisions, and bigotries of every kind, every denomination is differently minded, and, in addition, that through with every other spiritual ill. And who can deny this?

이러한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한 조건들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초기 제자들은 은사를받기 전에 (사도행전 2:1) 한마음이 되었다. 오순절 이전에는 그들은 계속 서로 충돌하고 서로보다 더 뛰어나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둘째, 그들은 세례받은 후에 서로 대화하고 주장하며 싸우고 다투어 한마음이 되었다. 이것은 특별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종파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특별한 관심은 같은 종파 안에 두 사람이 가르침과 실천의 모든 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들에는 분열과 편견이 있었고 모든 교단들이 다른 마음을 가졌고 게다가 모든 영적 질병이 있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Long before these sad conditions developed, the Lord foresaw them would come and inspired the Seer of the Seer saw his "sters" among the "wheat" (Matt. 13:25), the Lord said, "Let them grow together, for I will say to the reapers, harvest," saith the Lord, "I will say to the reapers, Gather ye together first the tares,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urn them: but gather the wheat into my barn." Matt. 13:25-30.

이러한 슬픈 상황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셨고 예언자들을 영감하셨다. 예언자들의 예언자는 밀 사이에 있는 그의 "스터"를 보았다 (마태 13:25), 주님께서는 "함께 자라게 하라, 내가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리라,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으라: 그러나 밀은 내 창고에 거두어 들이라." 마태 13:25-30.

Since it is therefore strictly Biblical that God will not bestow the gift of miracles upon a people other than those who as a group come to one mind, who are content to "see eye to eye" (Isa. 52:8), and since the Spirit cannot effect this unity and harmony among men, it is well commingled with the wheat, then all might as well recommendations to the educated, the cultured, the polished discipline of waiting on the Lord until "harvest" – till the tares, the divisions and bigotries of the sects are gone.

Those who will not wait, but are impatient to possess the power right now, are being deceived by the counterfeits with a spurious gift. Bent on having the gift of miracles regardless of the cost, they have taken up with the gifts made available for the hastening of the harvest, by mingling with the counterfeits. Unknowing, they have just as Pharaoh satisfied himself with the counterfeit miracles of Moses, so they have fallen against the serpents of Moses (Ex. 7:10-12). If these counterfeit miracles have not yet miraculously converted you and repent themselves of this folly, then they will have to pay for the penalty for paying no heed.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모임 형태로 모이고 한마음을 이루고 "눈과 눈을 마주보는" (이사야 52:8)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일치와 조화를 사람들에게 이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밀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은 "추수"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 가라지, 분열, 종파의 편견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권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표피적인 은사를 가진 위조품들에 의해 속임수에 빠지고 있다. 비용에 관계없이 기적의 은사를 가지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가라지를 섞음으로써 추수를 재촉하는 것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은사들을 가지게 되었다. 무지하게 위조품들과 섞임으로써 그들은 모세의 위조된 기적에 만족하였던 바로처럼 모세의 뱀들에 넘어가게 되었다 (출애굽기 7:10-12). 만일 이 위조된 기적들이 아직 기적적으로 당신을 회개하도록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리석음의 벌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But, you may say, if the Angels, not men, are to separate the good from the bad, and thus end "the harvest," then of what use and benefit will the gift of tongues be, if there are no more souls to save after that? It is precisely here that the Holy Ghost gifts of the Spirit of the church needs light lest she blindly plunge on and lose her way in the dense darkness ahead.

그러나 사람이 아닌 천사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하여 "추수를 끝내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구할 영혼이 없다면 방언의 은사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교회의 성령의 성령 은사를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눈을 뜨지 않고 앞을 가리고 앞에 있는 짙은 어둠 속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Now to summarize the types before the Pentecost: (1) the first fruits were numbered; (2) they came exclusively from the Jewish; (3) the miracles were confined to the Jewish.

지금까지 설명한 성령을 오순절 이전의 유형들을 요약하자면: (1) 그 열매는 일곱의 표시 숫자였다; (2) 그들은 전적으로 유대인에게 나왔으며; (3) 그들 때문에 기적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다.

Now coming to the types after the Pentecost: (1) the second fruits were not numbered; (2) they came from the nations; (3) the miracles were spread over the nations.

지금 오순절 이후의 유형들에 대해 설명하자면: (1) 두 번째 열매는 일곱의 숫자가 아니었다; (2) 그들은 열방에서 나왔으며; (3) 그들 때문에 기적은 다양하게 퍼졌다. 오순절 이후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곱 숫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왔으며 기적은 다양하게 퍼졌다. 그러므로 제롬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Hence it is true that Jerome was of the Gentiles. Thus, the "Gentiles" are the "second fruits." Hence, the "second fruits" are the "Gentiles." Hence, the "second fruits" are the "Gentiles." Hence, the "second fruits" are the "Gentiles